

축 사

음악을 통해 부처님을 찬탄하는 불교음악인의 무대인 ‘2010 전국불교합창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음성공양을 통해 스스로 신심을 돈우고 이웃에 불법을 전하는 전국에 계신 불교합창단원의 정성을 치하합니다. 신심과 원력으로 불교음악을 사랑하는 스님들과 불자들이 희망과 열정으로 그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은 무대가 마련될 수 있어 저 또한 가슴이 벅차고 기쁩니다.

예로부터 불교음악은 전해진 지역에 따라 그 지방색이 도드라진 특색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1천여 년 동안 지켜온 불교음악과 현대에 맞게 새롭게 창조되고 있는 찬불가는 불교문화의 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와 불교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바로 불교음악이라 생각합니다. 열악한 포교환경에서 불교음악인의 원력이 담긴 찬불가는 포교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창조적 계승과 찬불가의 발전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불교음악인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불교음악에 대한 관심과 부흥에는 누구보다 먼저 앞서 실천하고 계신 스님들과 불심 가득한 불자들의 노고와 참여가 가장 중요한 초석입니다.

최근에 각 사찰 합창단의 규모와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합창단의 왕성한 활동은 불교음악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와 같은 원력에 힘입어 2009년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가 구성되었으며, 전국 규모의 불교합창단을 조직화하여 자생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 기량과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불교합창제를 통해서 불교음악에 대한 전파력과 생명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종단은 앞으로도 불교음악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참가하고 있는 모든 합창단과 관계자들이 경쟁을 떠나 한 마음으로 즐기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뜻 깊은 본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아낌없는 관심을 보여주신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임원과 불교음악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기2554(2010)년 10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